‘종교평화운동’ … 부처님 오시면 가장 서두를 불사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㊺ 종교평화에 대한 소고

공직자란 어떤 뜻인가요? 공적(公的)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公)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사(私), 즉 자기 개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앙은 공인가요, 사인가요? 우리 현명한 독자 분들에게 새삼 이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독적인 일이겠지요? 당연히 개인적인 일이지요. 그렇다면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을 통해 사적인 자신의 종교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다른 종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지요? 실제로 무수한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종교편향에 대체로 피해자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도시의 시장님은 그 도시를 자신의 종교가 지배하는 성시(聖市)로 만들겠다는 성시와 운동을 벌리기도 하셨지요? 그 보다 더 유명한 선배시장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시장님께서는 개신교의 종교 집회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 하셨지요. 서울 특별시민은 갑자기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천국으로 바뀔 뻔했습니다 그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더군요. 이제 자칫하면 우리 온 국민이 주소지를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려.

인도의 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지요. 바라타대왕 족의 이야기를 그린 서사시인데, 주인공은 바라타대왕의 후손인 다섯 왕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맏이가 유디슈트라입니다. 그 서사시의 마지막은 다섯 왕자가 모두 신의 나라를 찾아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죽지요. 유디슈트라와 그를 따르는 충견, 즉 개 한마리만이 신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신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니 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때 유디슈트라는 “나만을 믿고 따라온 개를 버리고 신의 나라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안가겠다”고 발길을 돌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개를 버리고 들어가는 심성을 가진 사람의 신의 나라에 입장할 자격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신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처음 온 유디슈트라에게 천상세계와 지옥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디슈트라의 부모와 형제가 모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유디슈트라는 지옥행을 지원합니다. 왜냐구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혼자 천상세계로 간다면, 그 천상세계는 천상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었지요. 괴롭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 또한 시험이었습니다.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심성,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림 · 최주현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구요? 자기들만 천상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편향적인 사람들의 심성은 대체로 이런 심성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배척하고 무시하는 심성은 앞의 이야기와는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마하바라타의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말한 시장님이 서울특별시를 봉헌했던 집회가 그 뒤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 열광적인 집회의 전광판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부산시의 각 구(區) 별로 마약하는 사람들의 수, 성매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광판에 나왔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불교 신도 숫자였어요. 불교 신도는 마약사범이나 성매매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범어사가 무너지기를!” “**절이 무너지기를!”하는 기도가 뒤를 이었지요. 다른 종교의 성소가 무너지기를 대 놓고 기도하는 광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울특별시를 봉헌했던 시장님은 그 당시에는 더 높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서, 그 집회에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구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모든 불교 사찰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종교, 그들과 어찌 함께 살 수 있을까 걱정 아닌가요? 그런 종교의 집회에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봉헌’ 발언을 한다던가, 영상이지만 축하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완전히 공과 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만을 독야청청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만인 모든 공직자들이 각각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땅이 피튀기는 전쟁터가 되는 것, 순식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공직자 종교편향 문제 만연
인도 당시의 교훈 되새겨
아쇼카대왕 평화 사상 펼쳐야

이건 좀 큰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구요. 소소한 예를 들자면 끝도 없어요. 한 공직자는 기독교의 부활절이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하는 행사들을 모두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옮겼어요. 부활절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물의를 빚게 되자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지요. 물론 표면적으로 만요. 그 뒤 어떤 교회 신문이던가에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았지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라는 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계속하여 기독교의 종교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확실히 표면적으로만 사과한 것 맞지요?

자꾸 이런 예들을 들다보면 이것도 하나의 편향이 될 것 같아서 그만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그 종교 안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소수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구요. 그 안에도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묻혀 버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지요. 공직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신을 믿지 않아서 그런 끔찍한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편향에서 불교는 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앞장서서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다른 종교를 훼방하고 헐뜯은 경우는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교를 신봉하는 공직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온당한 분들이 많구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다 것이 삼쾌선생의 생각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히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식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불자들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바이블’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그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그 종교를 믿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품이야 얼마나 넓습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 읽는 것이 불교의 믿음에 방해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한걸음 더 나가 좋은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야 말로 천하무적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하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타 종교인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또 사회적으로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바탕을 만드는데도 불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함께하는 사회의 모습을, 불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낸 위대한 선배가 있지요. 바로 아쇼카 대왕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최초로 전 인도를 통일한 왕이지요. 그러나 전쟁의 비참함을 깊이 느껴 불교를 독실하게 신앙하면서 비폭력, 도적적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지요. 독실한 불자이면서도 자신의 종교만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칙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금도 바위에 새겨진 그 칙령이 남아 있어 그분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경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에 무덤을 파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나 ‘나는 내 종교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종교에 헌신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자신의 종교를 더욱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다. 경청하라! 다른 종교의 교의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불교에는 이러한 위대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배의 뒤를 이어 오늘날에도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거의 성사 직전에 무슨 이유인가 - 삼쾌선생은 무슨 이유인지 알고 있지만…, 중단된 ‘종교평화선언’을 성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완한다면 이 시대의 불교가 할 수 있는 큰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앞장서고, 모든 종교의 양식 있는 이들이 그에 호응하여 이 시대 이 땅에 종교가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쾌선생, 다시 한 번 힘차게 외칩니다. “종교평화불사 이룩합시다!” 그런 불사 있느냐구 갸우뚱 하시는 분들은 불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서두르실 일, 그것이 불사입니다. 그리고 종교평화야 말로 부처님도 서두르실 일! 그러니 ‘종교평화불사’ 맞습니다. 이룹시다, ‘종교평화불사’ !

